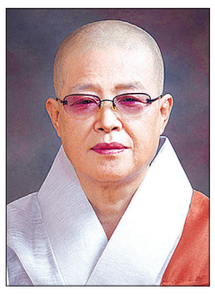
육문 스님 "비구니회 위상 강화" 공약

8월 27일 전국비구니회장 선거 출마의 변 발표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후보로 출마한 현 회장 육문 스님<사진>이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육문 스님은 8월 27일 발표한 출마의 변을 통해 "50년 역사를 지닌 전국비구니회는 작은 강과 물결을 보듬어 안고 도약을 위해 큰 바다로 나아가야 한다. 전국비구니회 100년의 도약을 위한 막대한 원력은 한국불교와 사회를 이끌어 가는 찬연한 역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4년은 더 큰 도약을 위해 비구니스님들의 참여와 변화를 바탕으로 존경받



비구니 복지 확대 · 내실 강화
수행 및 전법활동 지원 기틀
장학사업 통해 교육활동 장려

는 승가의 화합된 모습을 실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육문 스님은 지난 임기동안 △비구니원로회 구성 △12년 만의 명사법계 품서 △교육 · 복지 · 회관불사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을 통한 전국비구니회 위상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중앙종무기관과 종립학교, 복지기관 등에 비구니 소임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육문 스님은 "종단에 비구니 전용 요양원 설립을 건의하고, 입원 및 수술의료비 지원과 무료 건강검진을 확대하겠다"면서 "수행과 지역사회 나눔활동을 비롯해 불교문화콘텐츠 포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비구니회에서 개설하는 연수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템플스테이 및 호스피스 등 전문가과정을 정기교육하면서 비구니 인재불사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육문 스님은 "제11대 집행부는 제방에서 묵묵히 수행과 전법에 힘쓰시는 비구니스님들의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며 "비구니 수행자로서의 위상 정립과 안정된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육문 스님은 "세속의 정치적 논리가 비구니 승가에까지 파고들어 혼탁함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지혜의 안목을 열어 멀리 보시고 깊이 생각해 비구니 승가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면서 "지난 4년의 운영 경험화 추진력에 전국 비구니스님들을 외호하는 정직한 공심의 원력이 더해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봉선사 주지에 초격 · 성일 스님 입후보

주지 선출 산중총회 9월 6일

조계종 제25교구본사 봉선사 주지선거에 前중앙종회 부의장 초격 스님과 前의정부 원각사 주지 성일 스님이 입후보하면서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봉선사 주지 선출 산중총회를 앞두고 8월 25~27일 후보 등록 결과 초격 스님과 성일 스님이 등록했다. 앞서 초격 스님의 단독 출마가 예상됐지만 성일 스님이 입후보하면서 봉선사는 경선을 치러 차기 주지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기호 1번 초격 스님은 경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7년 봉선사서 운경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8년 통도사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한국문화연수원장과 총무원장 종



초격 스님



성일 스님

책특보, 파주 보광사 주지, 제13~17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기호 2번 성일 스님은 밀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해인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2003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봉선사 총무국장과 재무국장, 포천 흥룡사 주지, 파주 보광사 도솔암 감원, 남양주 흥국사 주지 등을 역임했다.

한편 주지 선출 산중총회는 6일 봉선사에서 열린다.

윤호섭 기자

日불교에 '한일갈등 해소' 성명 제안

종단협, 일본 측 회신 따라 방일특사단 파견 계획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상임이사회는 8월 27일 회의에서 일본불교계에 한일갈등 해소를 위한 공동성명을 제안키로 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로 발생한 한일 양국의 갈등상황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일본불교계에 제안키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8월 27일 서울 견지동 협의회 사무실에서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불교대표단 일본불교 방문의 건'을 심도 있게 다뤄 이 같이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앞서 회장 원행 스님과 각 종단 대표들이 7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오찬에서 설명한 방일특사단 계획을 공유하고, 시기의 적정성과 방일의 취지 등을 논의했다. 종단협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안건을 설명하면서 "양국관계가 엄중한 분위기인 만큼 일본불교 방문이 필요한지부터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상임이사들은 현재 국내 정서를 감안할 때 한국불교계의 일본 방문이 성과 없이 끝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을 우려했다. 이는 앞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일본 자민당 간사를 만나기 위해 방일했다가 문전박대 당하면서 정치적 결례라는 여론이 인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한일 양국 개신교와 천주교가 최근 공동담화문과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한일갈등을 야기한 아베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어 불교계 논의도 주요한 성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과거사 대한 일본의 사과 등
성명 초안에 담아 日에 전달
일본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
"성과 없는 방문은 의미 없어"

천태종 총무부장 월장 스님은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일본불교계와 갈등해소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본까지 찾아갔다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한다면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 스님은 "국가 간의 외교와 종교계 화해 교류가 반드시 같이 가야하는 건 아니다"면서 "특사단 파견 계획을 청와대에서 설명한 만큼 파견부터 한 뒤에 성과의 유무를 보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종단협은 일부 의견충돌이 발생하자 한국불교계가 공동성명의 초안을 작성해 일본불교계에 제안하고, 이를 일본 측이 받아들일 경우 특사단 파견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다만 한국 측 성명 초안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위안부 피해 등 과거사에 대한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요청하고 있어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종단협은 이와 함께 일본불교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공동성명에 참여해야 양국 불교계의 격에 맞는다는 점에서 일한불교교류협의회뿐만 아니라 전일본불교회의 동참도 요청했다. 만약 일본불교계가 공동성명을 받아들일 경우 종단협은 이르면 9월 중으로 특사단을 파견해 성명 채택 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종단협은 일본불교계가 제안한 일제강점기 조선인 희생자 유골봉환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9월 초 방일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앞서 구성한 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일정을 조율할 것을 주문했다.

조계종, 11월 중 파키스탄 국빈 초청 방문

국빈 초청 방문은 이번이 최초
정부 핵심인사 · 종교대표 만나
불교와 이슬람교의 교류 기대

조계종이 파키스탄의 국빈 초청을 받아 오는 11월 중 파키스탄을 방문한다. 조계종이 파키스탄의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라힘 하얏 쿠레쉬 주한 파키스탄 대사의 예방을 받고, 파키스탄의 국빈 초청에 화답했다. 원행 스님은 "마음속으로 파키스탄에 있는 부처님들을 보면 파키스탄이 위대한 나라라고 생각된다"며 "간다라불상부터 세계적인 불교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안다. 훌륭한 문화재를 잘 보존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에 쿠레쉬 대사는 "조계종의 방문은 파키스탄의 큰 영광이다. 정부에서도 기대가 크다"면서 "과거 8세기부터 혜초 스님이 간다라지역을 왕래하셨다. 이런 전통을 조계종이 되살려주셨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라힘 하얏 쿠레쉬 주한 파키스탄와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쿠레쉬 대사는 또한 인도와의 카슈미르 분쟁 상황을 묻는 원행 스님 질문에 "카슈미르 지역은 전통적으로 불교세가 강했던 곳이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에 정부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예방은 비공개로 전환됐지만 총무원에 따르면 원행 스님과 쿠레쉬 대사는 구체적인 파키스탄 방문 일정과 순례지역 등을 논의했다. 현재까지는 11월 15~30일 사이에 작지 않은 규모로 조계종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방문키로 했으며, 정부 핵심인사와 이슬람교 대표 등을 만날 예정이다. 확정되진 않았으나 맘눈 후세인 대통령과 임란 칸 총리와의 만남도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방에서 원행 스님은 384년 백제에 불교를 최초로 전한 마라난타 스님의 출생지역에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쿠레쉬 대사는 마라난타 스님 출생지뿐만 아니라 라호르박물관을 비롯해 파키스탄의 주요 불교유적지를 중심으로 순례일정을 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굴된 불교유적지를 조계종의 방문에 맞춰 공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에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방문에서 학교나 유치원 등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원행 스님은 "불교와 이슬람교, 한국과 파키스탄의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지속적으로 왕래하며 발전적인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계종을 향한 파키스탄의 이 같은 적극적인 초청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행자제(황색경보) · 철수권고(적색경보)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에 간다라불상 등 세계적인 불교문화재를 보유한 파키스탄이 조계종을 중심으로 치안에 문제가 없음을 알리고, 성지순례 등 불자들의 파키스탄 유입을 늘리고자 한 것이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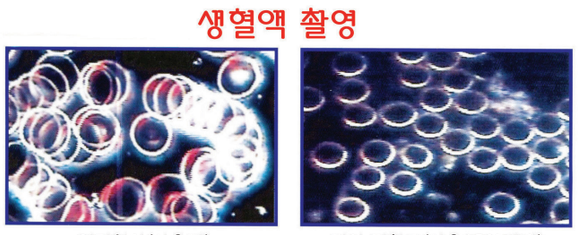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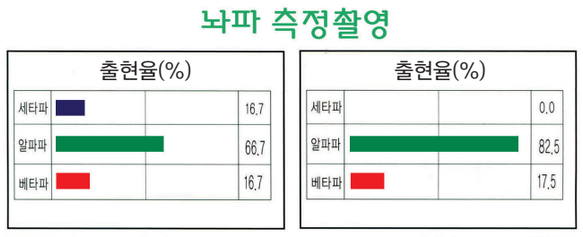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